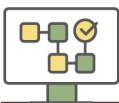


성과요약서

출산 가정 놓칠 뻔한 감면 혜택, 강남구가 먼저 찾아 2,700만원 환급

**추진 개요****☑ 배경 및 문제점**

- ▶ 2024년 신설된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(500만 원 한도)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발생
- ▶ 출산 정보(가족관계)와 과세 정보(재산세과)가 단절되어 있어,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확인 불가
- ▶ 생애 최초 주택 감면(200만 원 한도)과 중복 대상일 경우, 더 혜택이 큰 출산 감면을 선택해야 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발생

☑ 추진 내용

- ▶ 사업명: 출산 정보 기반 취득세 감면 누락자 선제 발굴 및 환급
- ▶ 전략: 보육지원과(출산 정보)와 재산세과(과세 정보) 간의 칸막이 제거 및 데이터 매칭
- ▶ 대상: 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했으나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

**추진 성과****☑ 감면 사각지대 발굴 및 환급: 총 8건, 2,700만 원**

- ▶ 감면 미신청자 발굴: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했으나 감면을 놓친 3건 발굴 (1,500만 원 환급 안내)
- ▶ 과소 신청자 구제: 생애 최초 감면(200만 원)만 받은 납세자에게 출산 감면(500만 원)과의 차액 추가 환급 안내 (5건, 1,200만 원)

☑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

- ▶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 추가 건의
- ▶ 보건소 모유 수유 클리닉 등 출산 부모 접점 장소에 안내문 비치

**시사점**

- ☑ 부서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친 권리를 행정이 먼저 찾아줌**
- ☑ 저출생 시대, 아이를 낳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따뜻한 세정 실현**

